

# 해남 송호해수욕장 “예약하고 오세요”

### 18일 개장...1일 500명 제한 ‘사전에예약제’

### 거대 모래조각 전시회 등 해변 볼거리 조성

해남 송호해수욕장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송호해수욕장은 오는 18일 개장 예정으로, 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지로 인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해수욕장 예약제를 실시한다.

예약제는 7월 10일부터 8월 9일 까지 운영하며 예약 사이트 (Songhobeach.kr)를 통해 날짜를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예약인원에 따라 현장 접수도 일부 가능하다.

예약자는 예약된 날짜에 주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예약 확인 후 QR 손목띠를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안심해변 사전예약제는 예약시

자가진단 항목이 있으며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출입명부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현장 접수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야외 샤워시설 추가 설치, 송림 주변 텐트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번호 배정, 해변의 파라솔 쉼터 운영 등도 실시한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해변 모래조각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길이 6m, 가로·세로 8m의 메인작품인 모래성을 비롯해 4m 높이의 겨울왕국, 바위거인, 펜수와 친구들, 동물의 숲 등 5점의 거대 모래조각을 선보인다.

송호해수욕장 모래조각은 세계



적으로 잘 알려진 모래조각 예술가인 최지훈, 지대영 작가가 작품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래조각 체험이 8월 1~2일, 8월 8~9일 1일 2회씩 예약제로 운영되며, 카약, 배틀보드 등 수상레저도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예

약제로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방역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수욕장 이용자는 미리 예약을 하고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 진도군 ‘사회적 거리두기’

### 2단계 기준·조치 홍보 나서

진도군이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주요 조치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상가·다중이용시설 소독과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진도대교 입구 진도휴게소에서 매일 공직자 44명이 24시간 3교대로 발열 검사장 운영을 통해 발열환자의 진도군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 종사자와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군민 홍보 사항에 대해 ▲마을 방송 ▲홍보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시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청 홈페이지 ‘일일상황보고’ 코너에 발열검사 현황 등 코로나 19 대응 추진사항과 군민 협조사항을 매일 홍보하고 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진도개 테마파크, 진도아리랑시네마 등 10여개 공공다중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함께 타미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꼼꼼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광주·전남의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수칙과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마스크 쓰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강진군청 민원실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이용...민원서류 발급

강진군은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군청 민원실 입구에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군청 민원실 현관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민원실 입구로 이

동해 재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총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점자 키패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등 편의 기능도 포함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24시간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군민들도 늦은 시간에 각종 서류발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2021 예산 확보 전력

### 기재부 예산실장·윤종인 행안부 차관 면담 지원 요청

신우철 완도군수가 섬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도·연륙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21 국고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완도의 숙원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요청했다.

임영진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자체에서 국가 예산 심의기간에는 만나기가 어려운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나 완도군의 핵심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10일에는 행안부 윤종인 차관과의 면담을 갖고 ‘노후~구도간 연도교 사업’ 완료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위해 2차 구간인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군, 내달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재산권 행사하세요”

### 1995년 6월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미등기 부동산 대상

장흥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

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

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

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